

지역 매아리

고창군, 전체 읍면 복지팀 설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맞춤형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해 전체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일반행정 중심이던 읍·면에 맞춤형 복지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난해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9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했고, 이달까지 나머지 5개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고창군 14개 읍·면에 군민이 만족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완료했다.

또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읍·면을 구석구석 누비며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복지차량을 지난해 9대 지원했고, 올 상반기 중 5대를 추가로 지원하여 현장 밀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공직자는 물론 군민이 관심을 갖고 이웃을 돌보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읍면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신속하게 찾고 행정에서는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쳐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오베이골 토요장터' 개장

고창군이 고인돌공원과 운곡삼사르습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베이골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인돌공원 내 다리목(고창읍 매산마을 경로당 일대)에서 오는 14일 '오베이골 토요장터'를 개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 주관으로 진행되는 '오베이골 토요장터'는 봄장(4·5·6월)과 가을장(9·10·11월)으로 나눠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총 12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번 '오베이골 토요장터'에는 6개 마을 30여명의 주민들과 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하며,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판매한다.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첫 장이 열리는 '오베이골 봄장은 두릅, 치누크 등 각종 봄나물과, 습지마을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만든 곡물 장아찌, 발효액부터 장류에 이르기까지 50여종의 다양한 농산물이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복분자 와플, 캐러터 쥬스, 오디 주스 등 고창의 특색을 담은 음식을 통해 즐거운 맛 여행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인버터기술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 협약 체결

내년 6월 말까지 19억원 투자... 신규 고용 창출 기대

정읍시와 인버터기술(주)이 12일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 인버터기술(주) 임현우 대표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인버터기술(주)은 내년 6월 말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4,737㎡(1.433평)에 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 측은 이번 투자로 모두 1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에서 김 시장 권한대행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해주신 인버터기술(주)에 감사드리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정읍시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버터기술(주)은 배전반과 자동제어반, 계장계측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대인공공단에서 임대 부지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가파르게 성장함에 따라 신규 투자 부지를 물색하던 중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새로 동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와 LH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야에

총력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TIT(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투자유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야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북도와 정읍시, LH,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 협약 체결률은 77%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연내 분량 마무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역 농수산물 활용 식품관광 상품 개발

부안군, 식품개발지원센터 현판식



부안군은 식품산업 발전과 2023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부안군 식품개발지원센터 현판식을 12일 품소갯길식품센터 광장에서 내빈과 군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안군 식품개발지원센터는 기존 품

소갯길식품센터내 요리개발실, 홍보관 회의실, 사무실 등을 이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식품개발지원센터는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이용해 식품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홍보, 컨설팅, 연구개발,

기술이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3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글로벌 식품개발을 위한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이 자리에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은 축사에서 "부안군 식품산업 발전과 더불어 2023년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글로벌 식품개발과 세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도 "이번 식품개발지원센터를 통해 부안군민과 100만 관광객들이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식품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2023 세계스카우트잰버리 개최에 맞춰 세계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는 부안의 맛과 멋 그리고 부안에서 행복한 기억과 그리움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 농산물가공센터 준공... 지역 농산물 가공 상품화 활성화 '기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12일 농업기술센터 내 현지에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총 17억원이 투입된 가공센터는 연면적 643㎡에 건식 가공실과 습식 가공실, 내·외포장실, 위생선실, 교육장 등이 들어서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농외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가공 상품

화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15년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사업'으로 응모했고, 사업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가공센터는 농업인이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업인 가공 공동 이용 시설이다.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초기 투자를 줄이면서 가공 창업의 가능성을 판단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기술센터는 앞으로 가공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벚꽃로 야간 경관 조명 '호평'

정읍 벚꽃축제 · 각종 봄 페스티벌 성료

정읍벚꽃축제를 비롯한 정읍의 봄 축제가 지난 6일부터 5일간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과 벚꽃로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 기간동안 벚꽃축제와 연계해 정읍예술제와 자생화 전시회, 자생차 페스티벌이 진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상고온이 이어지면서 1주일이 벚꽃이 일찍 개화한데다 축제기간 눈발이 날리고 강풍이 부는 등 꽃샘추위까지 기승을 부려 많은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막식과 축하공연에는 지난해 못지않게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아 인기가수 등이 펼치는 흥겨운 공연을 함께 즐겼다고 밝혔다.

벚꽃이 만개한 '차 없는 거리'에

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됐고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돼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했고 시민 중심의 도심형 축제를 연출했다.

시에 따르면 특히 벚꽃로 일대를 아름답게 밝힌 야간 경관 조명이 호평 받았다. 경관조명은 오는 15일까지 계속 벚꽃로를 밝힐 예정이다.

연계행사로 진행된 제22회 정읍예술제와 제4회 자생화전시, 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축제의 풍성함을 더해줬다.

시 관계자는 "날씨가 좋지 않아 정상률이 준비했던 것들을 100% 보여줄 수 없어 아쉽다"며 "꽃은 날씨에도 행사를 찾아 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철보 수력발전소'로 명칭 변경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해 11월 정읍시의회에서 발의한 「삼진강수력발전소, 철보 수력발전소로 명칭 변경 촉구건의안(김승범 대표발의)」을 전격 수용해 '철보 수력발전소'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읍시의회에서는 공공기관 명칭은 기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주민의 뜻이 가장 먼저 반영되어야 하고 일체감집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등 삶의 애환이 서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력발전소 8개소 모두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철보 수력발전소'로 명칭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정읍시의회의 발전소 명칭변경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 상생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명을 사용하는 발전소 명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철보 수력발전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보수력발전소는 1945년 준공한 남한지역 최초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로 단지 삼진강수계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진강 수력발전소(철보발전소)로 불리다가 1985년 삼진강수력발전소 명칭으로 70여년 동안 지역주민의 뜻과 다르게 불리어져 왔다.

지난 11일 지역구 김승범·김재오 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보 수력발전소 명칭변경 축하 기념 현판개막식 행사를 통해 철보면민의 염원이 이루어진 쾌거를 축하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ANGSANMYEONGJU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